

“김장 걱정마세요” 배추 소매가 20%·무 29% ↓

4인 가구 22.1포기 김장...평년보다 3.2%↓·지나해와는 비슷 농식품부 이달 말 수급안정 대책 발표...쿠팡할인·특판행사도

가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지만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김장철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인 가구 김장 규모는 배추 22.1포기로, 전년(21.9포기)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배추·무 수급 상황 및 전망' 자료에 담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서울 가락시장에서의 배추 도매가는 포기당 1500원 안팎으로, 평년보다 34% 가량 낮다. 무 1개 도매가는 850원 내외로, 평년보다 43% 하락했다.

소매가의 경우 광주 양동시장에서 지난 22일 팔린 고랭지 배추 1포기는 4000원으로, 이달 초순보

다 33.3%(-2000원)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1000원) 하락했다.

고랭지 무 1개 값은 2000원으로, 전년보다 28.6%(-800원) 낮았다.

최근 준고랭지 막바지 물량과 가을 작형 초기 물량이 출하되면서 김장 채소들의 가격 흐름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올해 가을배추 전국 재배면적은 1만1893ha으로, 평년(1만2805ha)보다 7.1%(912ha) 적다.

하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 감소율은 소폭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강원·충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추 무름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잦은 비가 그치고

이상고는 현상이 없어지면 전반적인 작황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병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율에 대해 중부지방이 10% 이상이며, 전북·경남은 2~3%, 최대 주산지인 해남의 경우 5~6% 수준으로 파악했다.

가을무 재배면적도 평년(4816ha)보다 6.5%(314ha) 적은 4502ha가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과일 생산된 여름 고랭지무의 10월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을무 출하량은 이달보다 11~12월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는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하나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을무는 11~12월에도 가격하락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김장의향 소

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인 가구 평균 김장 규모는 올해 22.1포기로, 지난해 21.9포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단 평년(22.8포기)보다는 3.2% 적다.

무 김장 규모는 8.7개로, 전년(8.6개) 및 평년(8.9개)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김장철인 11~12월 김장 채소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비축물량, 농협계약물량, 출하조절시설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등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쿠팡할인 지원과 특판행사도 벌인다.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절임배추를 11월5일까지 사전 예약하면 20%, 11월6일부터 12월까지의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AI 여파 회복? 산란계 사육수 소폭 상승

전년비 광주 14%·전남 2% 증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올 3분기 전국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9월1일 기준) 가축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광주 8만6000마리·전남 504만7139마리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13.9%(1만500마리)·1.8%(9만375마리) 증가했다.

전국 마릿수는 7072만2059마리로, 지난해 3분기보다 313만1000마리(-4.2%) 줄어든 수준이다.

통계청 측은 AI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이후 병아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경우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요기동의 한 고령인 농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가 펼쳐지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동곡농협 고령농가 주거환경개선 나서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동곡농협은 지난 22일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밀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강형구 광주본부장과 이동운 조합장, 동곡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10명 등이 참여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 지원을 받아 이뤄진 주거환경 개선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광산구 요기동 고령 농업인 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봉사 참가자들은 해당 농가에 싱크대를 설치해 줬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같은 날 '밀반찬 나눔행사'를 마련하고 김치, 장조림 등 밀반찬과 떡을 지역 돌봄 대상자에게 전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식량위기 대응 콤비나트 조성방안 논의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1일 '제2차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를 열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콤비나트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진 aT 사장과 양승현 가천대학교 교수,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식량안보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이틀 전문위원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공사에서 수립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집적단지) 추진 전략과 제를 공유했다.

콤비나트는 안정적인 공급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콤비나트를 장기적으로 '동북아 식량·식품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식량공공비축 모델 마련 ▲곡물 비축 전문인프라 확충 ▲동북아 가공중계무역 기반 구축 ▲소재식품 및 식품가공산업 육성 ▲농수산식품 수출 연관산업 집중 ▲친환경 콤비나트 조성 등 9개 전략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 현상, 코로나19 대응행 국민 장기화와 낮은 곡물자급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곡물 공공비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지나해 전남 기본직불금 4472억원

전체 지급액 20% 비중

지나해 전남 농민들에게 지급된 기본직불금은 447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0% 비중을 차지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기본직불금 시도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지급액은 소농직불금 922억8600만원·면적직불금 3548억8200만원 등 4471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은 0.5ha 이하 농사를 짓는 가구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

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1구간과 2ha 초과 6ha 이하 2구간, 6ha 초과 30ha 이하 3구간에 따라 ha당 지급 단가가 다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더한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전남이 전체(2조2768억8300만원)의 19.6%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북이 16.5%(375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충남 15.4%(3502억2600만원), 전북 13.8%(3149억4400만원), 경남 9.8%(2223억9100만원), 경기 7.7%(1749억900만원), 충북 6.2%(1420억3700만원), 강원 5.8%(1318억5200만원), 제주 2.1%(472억1300만원) 등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수협 위판장 14곳 저온·위생시설 없다

전체 47곳 중 30% 달해

전남지역 수협 산지위판장 47곳 가운데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비율이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은 갈매기나 쥐 등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수협 산지위판장 47곳 중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위판장은 29.8%에 달하는 14곳으로 조사됐다.

새나 쥐 등을 차단하는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전남 위판장은 22곳으로, 절반(46.8%)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위판장 211곳 중 46.4%(98곳)가 저온·위생시설이 없었다.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비중은 69.7%(147곳)

에 달했다.

수협 위판장이 위판·유통하는 국내 연근해 수산물은 전체의 약 80%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211개 수협 위판장 가운데 저온위판장·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

영광군수협과 목포수협은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는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에 선정돼 각각 올 연말, 내년까지 준공한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이는 청정위판장 건립에는 고흥군수협과 여수수협이 선정돼 각각 올 연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청정위판장은 기존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